

배포일시	2021. 4. 19.(월)부터 보도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차 주 일
			담 당	김 미 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홍보담당	연락처	(033) 640-4063	

강릉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촉구 성명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4월 19일(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것에 크게 반발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그리고 일본 자국민들까지도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 수소 등은 회석하여 버린다면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 청정 수부도시 강릉의 해양관광산업과 수산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따라 강릉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 △원전 오염수에 대한 관리방법과 처리 절차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성명서 1부. 끝.